운송업 Weekly
미·중 항만세 유예 기대감 반영

Analyst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 지난주 당사 유니버스 운송업의 수익률은 전주대비 +3.2%를 기록, KOSPI 주간수익률 4.2%를 하회, KOSDAQ 주간수익률 2.0%를 상회
- 지난 한 주간 운송 업종에 대한 수급은 기관 395억원 순매도, 외국인 183억원 순매도, 연기금 248억원 순매도
- 당사 커버리지 중 주간 수익률 상위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12.5%, 대한해운 4.5%, 한진 +2.3% 등
- BDI는 10월 31일 기준 1,966pt로 전주대비 1.3% 하락, SCFI는 10월 31일 기준 1,551pt로 전주대비 10.5% 상승

-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항만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대폭 상승
-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10월 30일 25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입항세를 하주들에게 전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하주들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4분기 중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현대글로비스의 3분기 실적은 국내 비계열 완성차 업체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으로 PCTC 부문의 실적에 감익 요인이 발생하였고, 미국 완성차 공장의 라인 조정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CKD부문에서도 실적 감소 요인 있었음에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
- 당사는 "두려워 말고 비중을 늘릴 시점" 자료를 통해 25년 3분기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Review 및 4분기 및 2026년의 실적 개선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 동사는 4분기부터 한미관세협상 타결, 3분기 일시적 부진 요인 해소, 그리고 신흥국 KD물량의 이전, PCTC 장기 용선 인도에 따른 선대 효율화로 외형 및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실적 개선 지속 시 동사의 ROE Target 15%+α를 맞추기 위해선 배당성향의 상승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기업·주주가치의 중장기적 레벨업을 예상
- 이번주 1,551pt를 기록한 SCFI는 미주항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주말 대비 10%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 미주 운임의 상승은 11월 1일자로 선사들의 GRI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 2026년 Service Contract를 앞둔 유럽 항로에서는 선사들이 운임 방어에 나서면서 운임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운송 및 지주업 실적 발표일: 팬오션(11/03(월) 15:00 Zoom 화상회의), HD현대(11/03(월) 15:30 컨콜), 한화(11/6(목) 14:00 Teams 화상회의), CJ대한통운(11/07(금) 09:30 컨콜) 두산(11/10(월) 14:30 컨콜), LG(11/13(목) 15:30 Webex 화상회의), SK·CJ(11/14(금) 장마감 후 자료게시)

커버리지 기업 주가 수익률 & 수급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수익률 (%)						주간 매매동향 (십억원)		
			1 W	1 M	3M	6M	12M	YTD	기관	외국인	연기금
대한항공	22,150	8,156	-1.1	-2.6	-6.5	5.7	-7.3	-2.0	-39.5	-18.3	-24.8
제주항공	5,710	460	-3.2	-10.8	-15.9	-14.8	-40.0	-23.9	-0.3	-0.2	-0.2
진에어	7,210	376	-1.6	-9.2	-19.6	-19.3	-35.6	-25.1	-0.4	-0.7	-0.2
티웨이항공	1,821	496	0.0	-2.3	-3.5	-14.9	-47.8	-24.1	0.0	0.0	0.0
CJ 대한통운	82,400	1,880	-0.2	-2.1	-7.4	-1.0	-6.2	-2.4	-0.7	0.4	-0.9
한진	20,000	305	2.3	-1.2	-4.3	4.4	4.3	5.2	-0.2	0.8	0.0
현대글로비스	188,800	14,160	12.5	14.2	28.0	65.6	54.6	59.9	29.2	4.7	15.2
대한해운	1,878	606	4.5	9.1	1.4	23.6	4.3	12.2	0.3	10.9	0.1
팬오션	3,830	2,047	0.0	-0.8	-9.0	14.8	7.7	16.1	0.8	-2.3	-0.5
HMM	20,550	19,384	0.0	2.5	-12.4	12.5	20.0	16.4	0.1	-13.2	-5.2
운송업		**47,870**	**3.2**	**0.5**	**-5.1**	**25.1**	**27.1**	**48.2**	**-10.8**	**-18.0**	**-16.4**
KOSPI	4,108	3,285,795	4.2	19.9	26.6	60.7	60.7	93.1	-1,097.8	106.5	-797.7
KOSDAQ	900	474,704	2.0	6.9	11.8	21.2	21.2	52.2	264.9	498.1	12.4
NIKKEI	52,411	-	6.3	17.6	28.5	43.8	37.7	56.6	-	-	-
SHANGHAI	3,955	-	0.1	1.9	11.1	20.6	20.9	33.5	-	-	-
FTSE	9,717	-	0.7	2.9	7.2	14.4	18.8	25.8	-	-	-
Dow Jones	47,563	-	0.8	2.4	9.1	16.7	13.1	26.1	-	-	-
S&P 500	6,840	-	0.7	1.9	9.7	22.1	19.4	44.2	-	-	-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매출액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

(단위: %)

기업명	3Q25 Sales Consensus Change			3Q25 OP Consensus Change		
	1W	1M	3M	1W	1M	3M
대한항공	0.0	-2.7	-5.9	0.0	-14.1	-27.5
제주항공	0.0	-4.7	-5.3	0.0	-87.2	-90.1
진에어	-0.3	-3.7	-8.3	3.1	-19.7	-47.3
티웨이항공	4.7	-	-	-	-	-
CJ 대한통운	0.0	-0.3	-2.8	0.0	1.6	-3.6
한진	0.0	-	-	0.0	-	-
현대글로비스	-0.4	-0.6	-0.5	-1.0	-1.1	0.3
대한해운	0.0	0.5	-1.1	0.0	-1.3	-12.5
팬오션	0.0	-0.5	-2.1	0.0	-1.8	-2.9
HMM	0.4	1.1	-5.3	3.8	11.0	-46.5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운송업 주요 지표

(단위: 원, $, pt, %)

	종가	수익률	
		1W	1M
원/달러	1,426.5	-0.9	1.7
WTI	61.0	-2.1	-1.3
DUBAI	64.3	-2.5	-3.1
Jet Fuel	91.6	0.3	4.1
BDI	1,966.0	-1.3	-0.7
BCI	2,929	2.0	1.3
BPI	1,821	-5.4	5.6
BSI	1,326	-3.1	-9.6
CCFI	1,021	2.9	-6.1
SCFI	1,551	10.5	39.1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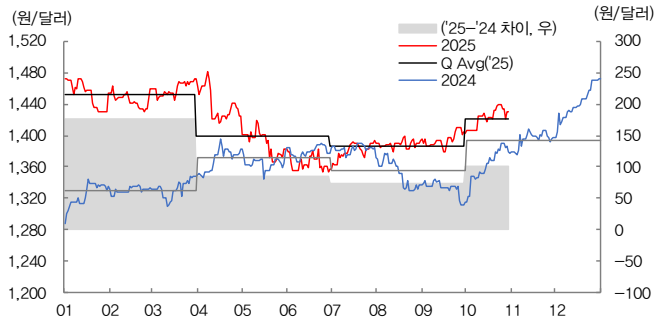
금주 시장 동향

주요 기사	핵심 동향
[해상운송] US and China pause port levies for one year after Trump-Xi meeting in Busan https://tinyurl.com/2b53luhx	▪ 한국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USTR 항만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 언제 공식적으로 요금 징수를 중단할지, 이미 납부된 금액이 환불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미중 갈등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 지난 4월 USTR은 물류 및 해운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공식 항만 수수료 규정을 발표. 10월 14일부터 발효되었으나 금번 협상 타결로 1년 유예되며 해운업계 안도 ▪ 또 다른 합의사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절반인 10%로 낮추는 반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조정하는 내용. 또한 미국은 9월 29일 산업안보국이 수출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채택한 '50% 규정'을 1년간 유예하고, 중국은 10월 9일 도입한 희토류 관련 수출 제한 조치 시행을 보류할 예정
[항공운송] [APEC 슈퍼위크] 백악관 "대한항공, 보잉기 103대…가스공사, 美 LNG 연 330만톤 구매" https://tinyurl.com/2yry4ptw	▪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되며 현지시간 29일 백악관이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약 6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투자 유치성과를 발표. 공개된 팩트시트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 LS그룹,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주요 기업의 이름과 계약내용을 담은 자료 ▪ 백악관은 대한항공이 362억달러(51조5500억원) 상당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 항공으로부터 137억달러(19조5100억원) 규모의 엔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 또 대한항공이 본 계약으로 미국 내 약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 설명
[육상운송] 민노총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소비자 99% "계속 쓰겠다" https://tinyurl.com/29eg7uvc	▪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시간(00시~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과로 방지 대책으로 '새벽배송 금지' 방안을 추진.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98.9%는 새벽배송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 응답. 중단, 축소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 ▪ 소비자단체는 전국 2,000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벽배송이 국민 일상생활의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 이 같은 조사결과에 주요 소비자단체와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쿠팡노조 등 단체들의 반발세가 커지는 모습.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쿠팡과 컬리,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

자료: 각 신문사 취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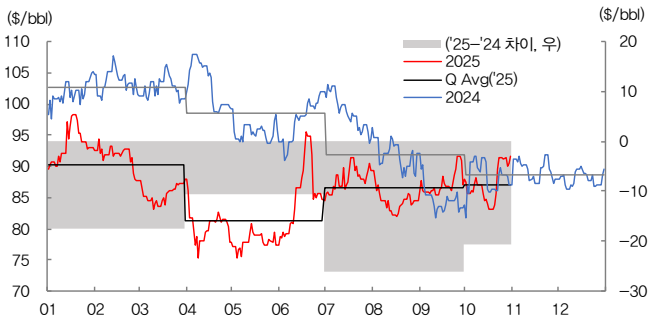
금주 주요 차트 MAP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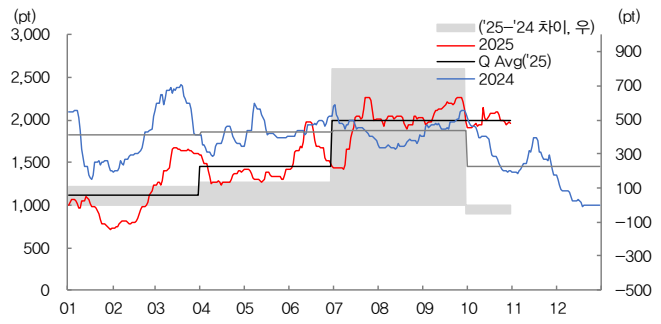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Jet Fuel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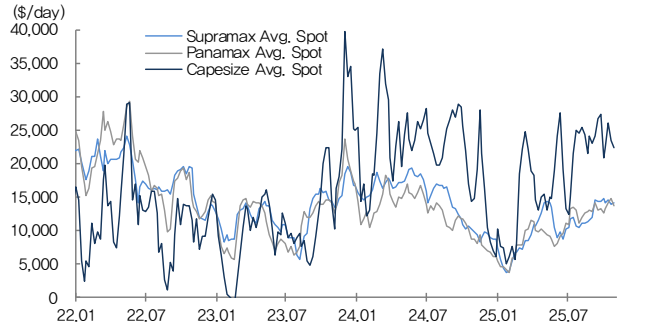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ltic Dry Index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ulkcarrier Spot Earnings 추이



자료: Clark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양지환)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